

교회 목표

신랄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 1:21)

대한예수교
총회 교회

총회교의 사용목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총회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항수

2002년도 제1차 청지기 훈련 - "주의 만찬"

2월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오후 7시에서 9시

2002년도 제1차 청지기훈련이 이제 십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 동안 청지기훈련은 총회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청지기훈련에도 총회의 직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훈련에 참석하여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숙지하고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란다. 성도들은 일정에 따른 성경말씀과 제목을 미리 독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얻기 바란다.

청지기훈련을 위한 기도

• 위임목사를 통해서 준비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열매맺게 하여 주소서.
• 총회의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소서.
• 말씀을 통해서 총회교회가 하나되는 영적 연합을 이루소서.
•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진리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소서.
•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가장 가까운 모임

신앙이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9장... 다같이
성서교독... 64번... 다같이
찬... 447장... 다같이
설... 시 145:1... 인도자
기...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세 가지의 감사"(설교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①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②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던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높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높이기 됩니다.
③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권익에서 의인으로 높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 수요예배 메시지

하나님께 향한 크리스천의 의무 (벧전 2:2)

'모든 육체, 오직 주의 말씀'(1:24-25) -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 기록이 많았던 사람이다. 그는 예수로 인하여 만연(滿漣)의 기쁨을 체험하고 그 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눅 5:20). 하지만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물위를 건다가 금방 물 속에 빠져서 실려달라 고 소리를 쳤다가 14:30). 또한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칭찬을 받은 자리에서는 금방 호된 해람을 받기도 했다(마 16:23).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세 번이나 그를 부인했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세 번의 질문에 대해 한신(한신)의 고백을 한 뒤에도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식에 빠져 있었다(요 21:2). 그런 그가 비로소 모든 육체의 허망함을 인식하고(벧전 1:24), 세세토록 영원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벧전 1:25).

'갓난 아이들같이 순진하고 심령한 것을 사모하라'(2:2a) -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갓난 아이들같이'라고 표현했다. 갓난 아이들에게 엄마의 품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곳이며, 엄마의 품에서 먹는 순진하고 심령한 것은 최상의 양식이다. 그와 같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이아말로 가장 즐겁고 안전한 곳이며, 주의 말씀이아말로 가장 좋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니 셈이다. 그렇다. 부모가 갓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순진하고 심령한 것을 먹이듯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풍족하게 주셨다고 하신다. "너희 목마른 자들이아말로 나이다오라. 돈 있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도 오라. 너희가 오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리라"(사 55:1).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2:1b) - 그렇지만, 주의 자녀들이 갓난 아이들같이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그 이유를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다. 달리 말하자면, 순진하고 심령한 말씀을 받는 '목'에는 성장이라는 '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자들을 향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라고 고 당부한다. 물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안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주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를 더욱더 친밀하게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에 참여하길 원하신다.

'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딤후 3:15) - 갓난 아이들에게 순진하고 심령한 것이 가장 필요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이 오신 주님에게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었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이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딤후 3:16). 이는 말씀만이 인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기 때문이다(딤후 3:17). '여러분의 말씀을 삼갔고 운동하기를 하여 죄에 빠진 어찌 겁보다 더하여야 하고 온갖 악과 악한 교회를 떨쳐 쫓아내기까지 하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싸나니'(히 4:12)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요 15:16) - 주님께는 그의 자녀들에게 열매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기도는 지극히 세속적인 나의 욕심일 뿐이며,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하실까'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를 걱정하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원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며, 그 음성으로 말씀이 임함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인품을 주창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라라'(눅 18:31) - 자신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감격에 빠지는가? 아니면 정작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뒤로 한 채, 세상의 복을 빌며 성공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말씀에서 얻어진 것, 이곳저곳을 분주히 돌지키는 요란한 빈 것들과 같은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않도록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이들같이 순진하고 심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외치고 있다.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을 이루는 성숙한 삶을 사셨는가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셨는가 '또 이르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세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사면애의 나를 기라기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 이것이라 하시고'(눅 24:44).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들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요 1:45).

2002 전반기 장로학생 명단

전역 장학생(9명)

김범진 장인아 이희주 강진수 조은정 이복순
가운영 오경희 강민철

대학원생(15명)

엄정섭 이종원 정미현 김지혜 김민철 안영희
이숙향 이명희 이우선 서병찬 김우정 최현주
최지영 백경희 김성자

대학생(47명)

최정아 박경희 추진희 김지희 노성현 유종민
박연미 장성호 장정은 김경운 홍사라 김혜진
김요한 김한바로 한정우 박규진 강우정 조선휘
박하얀 송효기 배재혜 이미현 박영진 강민아
김희정 변강석 김진애 오남경 권성재 김한바
김소희 조혜인 정국웅 이은혜 김은혜
최두루 추희은 이영우 조성직 조정혜 정재욱
박이령 장우리 박경옥 이덕용 오미정

고등학생(80명)

김소현 지효정 김희진 김진영 김용준 김근태
곽현우 문선령 유미나 이주영 김보성 이정덕
유미정 박지영 윤태원 최 용 이훈휘 사동혁
한태범 백지연 이재의 장미라 조상미 이지영
정규환 박미영 장정현 김소영 박순성 김문철
박지아 염혜실 김지름 박우영 이덕진 박한용
김영준 이복희 이봉호 김은연 한광아 최용영
강문구 이재욱 지형준 이대오 김지희 조 형
박정훈 이다정 홍경화 박상직 김상혁 이민정
김보미 문영인 장하나 이혜원 이영훈 이한솔
김윤정 이효근 김희철 최유진 황용욱 하대영
전선영 유송희 이희준B 김희숙 이태호 이대복
서영은 김지옥 김기현 함용복 송용우 윤기호

동학개(8명)

김예진 정범음 이재원 우가원 강 진 김지혜
강미경 이주강

정학금수서적

2002년 2월 17일(다름주일)

저녁 찬양예배후 배디나눔

이상 159명

Why believers turn around (Luke 9:62)

"But Jesus said to him,

No one, after putting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ing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As Jesus headed to Jerusalem, His ascension soon pending, He encountered several people who were affected by His ministry. They really liked Him. His preaching obviously had some impact on them. One man said to Him,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v. 57). This individual believ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He was willing to follow Jesus to the Temple, to a palace, or even to the toughest of places. His confession sounded really good, but Jesus told him, "The foxes have holes and the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v. 58). Jesus' response was entirely different than what the man expected to hear. He knew this man. He knew this man's words were shallow. Jesus knows believers. He knows you!

Jesus told another man who said that he would follow Him right after he said good-bye to his family, "No one, after putting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ing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v. 62). Why? Jesus loves you. He died for you. He even invites you to come to Him. The real thing is that He knows you.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get emotionally excited when they hear the preaching of God's Word. They know Jesus is great and powerful, and they want to follow Him. The problem is that they turn around and fall away from God's grace. Their attitude is ready, but they still look back. The key is why? Why do believers turn around?

Paul told the Galatians, "You have been severed from Christ, you who are seeking to be justified by law; you have fallen from grace" (Gal. 5:4). Too many Christian hearts love Jesus but want to be justified by law. They think because they go to church every Sunday, tithe regularly, have success, talent, or just generally do good things, they are accepted by God. But that's why they're cut off from the grace of God. Christ told Paul in his affliction,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power is perfected in weakness" (2 Cor. 12:9). That's the key! Real believers find out that Christ alone is plenty enough. When you discover how really terrible and weak you are, when you confess that, perfection comes in. Before then, those who say "I am going to follow You" or "I'm ready Lord" aren't ready. They will indeed turn around. Problems of money, clothes, family, health or whatever will quickly turn their heads. Only when you deny yourself will you find peace. A lot of people don't deny themselves, they haven't experienced or confessed their weakness. Their theory is to think, "I'm weak so give me power", but their perspective is all wrong. It's in their weakness that Christ is made strong.

Believers turn away from God because their roots are not deep. The Bible tells us, "And after the sun had risen, it was scorched; and because it had no root, it withered away" (Mk. 4:6). This verse is part of Jesus' parable about the sower. Jesus wanted the people to examine their hearts' responses to His message. When the Word of God goes out, it spreads. You accept it, you get emotional excited over it, you even proclaim God's grace is good and that you love Him and want to follow Him, but your roots are not deep. Whenever you first receive God's Word you are happy, but you don't get roots for awhile. Because it's the Word of God you know it's good. So you go out into the world to find out that the world doesn't like it or you. You want to practice your faith but society doesn't want you to. Because of the Word of God, believers turn around. The persecution and troubles of non-acceptance in society force believers to turn around. "These are the ones who are beside the road where the word is sown; and when they hear, immediately Satan comes and take away the word which has been sown in them" (Mk. 4:15). The afflictions,

worries of the world, deceitfulness of riches,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enter in and choke the word. Satan takes it away because it is the word of God.

This world is filled with earthly things. People get scared away or caught up in worldly matters. Luke 21:34&35 tells us, "Be on guard, so that your hearts will not be weighted down with dissipation and drunkenness and the worries of life, and that day will not come on you suddenly like a trap; for it will come upon all those who dwell on the face of all the earth." Actually, the believers who turn away aren't converted. They haven't fulfilled the terms of the Gospel. There's no true repentance, no understanding of godly sorrow for sin in their hearts. That's why they don't hold on and believe in the truth. Paul confessed, "For I determined to know nothing among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1 Cor. 2:2). People love the preacher, but they don't follow Jesus. Those who don't confess their sin are not converted. Their roots are shallow, not deep, and they will turn around. They're not born again Christians through the Gospel. Look at Lot's wife. That's Jesus Christ's sermon here. If you love what you're hearing now through me, this is short term. You're not born again until you bitterly repent that Jesus died for you because you are a sinner, a terrible, sick, and weak person. Without this confession my friends, your roots are shallow. You may want to keep the Word of God, but the persecution you're going to face the minute you walk out these doors will make you turn away.

Believers who turn around aren't careful with their life. Their bodies are for their own enjoyment, not for the body of Christ. They drink, smoke, and party like there's no tomorrow. They're not on guard. They're filled with anxiety about their education, careers, and family. Look at your life. Pride, eagerness, and your own desires make you dumb, not Christ-centered. You are self-centered. You are not the temple of God. Your body is a palace for you. Let me ask, are you a Christian soldier or not? Christian soldiers don't hang onto their personal life. "Suffer hardship with me, as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No soldier in active service entangles himself in the affairs of everyday life, so that he may please the one who enlisted him as a soldier" (2 Tim. 2:3&4).

Believers who turn around don't act under the light. Christ is the light of the world. He shines on you, right? But you don't live in His light, you fall down in the darkness,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1 Jn. 1:7). People who don't act in the light turn around. Yes, they claim to love Jesus but they turn around; they love darkness. "So Jesus was saying to those Jews who had believed Him, 'If you abide in My Word, then you are truly disciples of Mine'" (Jn. 8:31). You've got to abide in the Word of God. He is the light, the way, and the truth.

Do you want to deny yourself and only follow Jesus? If it's true, then you don't turn around. If your knowledge about the Lord is only on Jesus' greatness and power, I know you are going to turn around. "No one, after putting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ing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v. 62). Amen. Jesus' word is to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Him. That's the only way not to turn around. It's the secret of God. The people who think they're smart, talented, and generally good, and say, "I will follow You", Jesus knows they will turn around.

왜 돌아서는가? (눅 9: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김성관 목사

마음에도 없는 고백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임박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일에 영광을 받은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를 좋아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분명히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춥니다”(57절). 이 사람은 예수를 메시야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라서 성전이나 궁전, 또는 가장 힘든 곳이라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매우 훌륭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유도 없이 있고 풍족의 세도 같이 있으면 인자는 머리 돌 줄 것도 없다”(58절). 예수의 대답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

예수께서는, 가족에게 자별인사를 할 후에 예수를 따르겠다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니라”(62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위대하고 권세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며,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돌아서서 멀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라는 준비되었으나 여전히 뒤를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들은 돌아서을까요?

영혼의 참된 각성이 없으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5:4).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율법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매우 교만하고 나서서 성령으로 성공했으며, 재능도 있고, 인본적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피로워 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 이젠 내 능력이 약한 내세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진정한 신자들은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가를 알고 그러한 자신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에 온전함이 찾아올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에 대한 참된 각성이 있기 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또는 “주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경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돌아설 것입니다. 돈 문제, 의식주의 문제, 가족문제, 건강문제 등이 생기기만 끊임 돌아설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부인할 때 여러분은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경멸하지 못했거나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연약하니, 내게 힘을 주소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틀린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사용해서 강한 것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신자들은 낙원계로부터 돌아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막 4:6). 이 구절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씨뿌리는 자의 바울’ 중 일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르친 메시지에 대하여 사랑들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으로 나오면 곧 버려집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불분명하니, 하나님의 은혜는 선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겠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뿌리가 깊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을 때는 기쁨을 맛볼 수 있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성경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좋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세상이요 나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말씀과 그 말씀을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기 원하지만, 사회가 그런 여러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아있고 돌아

섭니다. 이 사회가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핍박과 난란은 신자들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깊다는 것은 이들이나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막 4:15). 그렇습니다. 괴로움, 세상의 근심, 부의 기만, 그 밖에 다른 무엇인가를 향한 열망 등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대해 음조려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단은 그것을 낚아채 버립니다.

죄에 대한 탄식이 없으므로

이 세상은 온갖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그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1:34-35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에 그 날이 몰래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사실 돌아서는 신자는 진정한 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이 제시하는 조건들에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그 마음에 죄를 향한 강력한 슬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살을 볼 줄도 없고, 또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사람들은 설교하는 사람만입니다. 예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 곧 돌아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꽃의 아내를 보십시오. 예수의 설교에도 그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죄의 일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자기가 죄악되고 비참하며 병들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이러한 이유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탄식하며 고백하기 전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의 뿌리는 땅을 수박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걸어가는 순간 찾아오는 핍박이 여러분을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신중하지 않는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의 욕제는 오직 즐거움을 위한 것일 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파티를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육과 장래와 가족에 대해 염려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교만, 욕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는 바보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공전일 뿐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신의 개인적 인생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지”(딤후 2:3-4). ”

빛 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므로

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이들은 빛 아래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위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서 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자기 빛 가운데서 살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한다 주장하지만, 돌아서고 맙니다. 그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요 8:31).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이 빛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지식뿐인 신앙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기 원하십니까? 진실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지식이 단지 예수의 위대함과 관계에만 국한되었다면 여러분은 돌아설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니라”(62절). 어떤 예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스스로 목욕하고 재능이 있고 전체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혹시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지 모르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돌아설 것을 이미 아십니다. ■

“나라 자매의 가정” 계속되는 부흥의 역사

민 병 윤 (선교전도사 풍물지도)



(사진설명: 맨 앞 두 어린이 중 우측이 가영이, 가영이 왼쪽 어린이 뒤에 웃고 있는 두 모녀가 나라와 어요나입니다. 어요나는 왼쪽, 나라는 오른쪽)

파주 지역에 사는 '나라' (한국어로 태양이라는 뜻)자매의 가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몽골인 가정으로 남편 '자카' (행복이라는 뜻)와 딸 '어요나' (정신이라는 뜻), 가영, 그리고 이모 '토야' (빛이라는 뜻)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어요나가 처음 믿음을 가진 후, 성령의 역사로 그 지역에 전도와 부흥의 불길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라와 어요나가 2001년 12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요나가 정신적 쇼크와 스트레스, 자주 제조현장의 먼지 등으로 정신적인 장애를 보였습니다. 주일집회때 지체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를 간구하였습니다. 세례받은 자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파주지역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3개월 후, 어요나가 건강을 회복하자, 이번에는 어머니 나라가 쓰러졌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딸 어요나에 대한 근심, 야간 작업의 피로가 누적된 것입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자는 어요나와 나라, 두 모녀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 지역복음화의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라자매의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제가 열려하였던 것은 단 하나, ‘혹시 이들이 실족하여 주님을 소홀히 하면 어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 가정에 생긴 상처가 아물면서 파주지역에 새로운 신자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알고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파주에 사는 아디야 형제는 오는 2월 말에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년간 죽 교회에 나오다가 이제 결심한 것입니다. 한 가정을 부르시고 그 가정에 복음의 빛을 밝히시며 위기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파주 지역에 구원의 나팔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 그 가정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시련 속에서 계속 믿음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분을 생각하며 두렵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장에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함이라” (벧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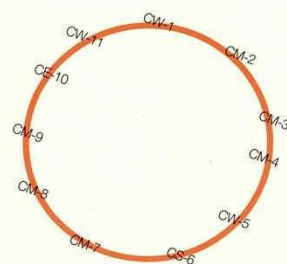
CMTC(충현선교훈련) 과목 이수제

총 11과목을 3차에 훈련 중 아무때나 이수가능, 언제든지 입학수강이 가능해

2002 단기선교단에서 추진하는 충현선교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현재 CMTC에 신청한 사람은 1189명이고 토요일반과 주일반에서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6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단기선교단 훈련분과에서는 훈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 11시간 중 한 시간이라도 빠지면 수료시키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단기선교단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적절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11과목에 대한 과목 이수제를 적용기로 했다. 2002년도에 총 3차에 걸친 CMTC에서 어느 때든지 모든 과목을 이수하면 수료할 수 있다. 따라서 CMTC를 위해 어느 때든지 각 개인의 형편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내고 시작할 수 있다. 현재 CMTC 1차 교육이 4주째 하고 있지만 5주째부터 수강할 수가 있고, 이수하지 못한 1~4주 과목은 2차 혹은 3차에서 수강하면 된다. 또한 1차 교육중인 사람중에 한두번 결석한 사람은 다음 2차에서 이수 못한 과목을 수강하면 된다. 각 과목의 훈련 과목과 과목코드는 다음과 같다.

- CW-1 개강예배 / 오리엔테이션
- CM-2 선교의 의미와 역사
- CM-3 타문화의 이해
- CM-4 팀사역
- CW-5 비교종교학
- CS-6 1박 수련회
- CM-7 국내외국인 사역과 선교
- CM-8 단기선교의 실제1
- CM-9 단기선교의 실제2
- CE-10 전도훈련
- CW-11 음급처치 / 폐회예배



CMTC 훈련을 받으며

김 영 레 (집사, CMTC 토요반)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수없이 고백한 저입니다. 그런 저에게 CMTC 교육은 제 자신을 이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CMTC 훈련은 선교는 특정인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언제가 기회가 되면 동참하리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던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설레임과 긴장 속에 참여한 훈련에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면, 실제로는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저의 부끄러운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CMTC 교육을 통하여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열방과 족속들을 향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학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 수 경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을 없는 고민들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새가족 지체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 만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새가족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민족이, 민족어를 보면 생각이 납니다. 막막 달아있던 스펀지가 한꺼번에 물을 흡수하여 급속 촉촉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민족이는 새가족의 마스코트입니다.

용승이는 저에게 큰 은혜를 느끼게 해 준 친구입니다. 눈이 덜 녹은 산에서 추위와 어둠을 깨고 기도하며 흘린 용승이의 눈물은 세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용승이가 눈물을 흘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용승이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세연이. 세연이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순수하고 솔직한 세연이가 수련회에서 했던 고백을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산기도를 끌고와 세연이는 예수님을 만나니 어둠 속에서 햇빛을 본 것과 같은 신선한 충격으로 조금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기쁘다고 했던 세연이. 세연이가 그 무엇보다 좋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남다마 마음과 영성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연주. 연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연주(演奏)하는 것 같습니다. 세연 언니를 격려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연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연주의 기도가 언제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때까지 연주도 더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어려운 와중에 수련회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알리고 노력했던 지윤이의 영리한 눈빛이 생감이 납니다. 또 힘들게 기도원에 온 성훈이의 착한 얼굴도 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이 충원교회 안에서, 그리고 대학부 안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2002년 대학부 교사를 시작하며

조 수 진 (대학부 교사)

올해 나는 대학부 학원으로 7학년이 되었다. 어느새 나에게는 내가 울려다 봐야 할 신배들보다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후배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대학부 안에서의 나의 위치도 점차 변화가 되었다. 대학부가 나에게 준 것들 중 하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사랑과 섬김'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비단 인간적인 노력과 봉사만은 아니었다. 팀장은 조장에게, 조장은 조원에게 보여주고 행했던 내적, 외적인 헌신과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다. 또한 충원 대학부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며, 가슴시린 상처를 십자가 앞에 놓고 서로 기도하면서 치유해 갔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부에서 수년 간 섬김을 받기만 했던 나에게도 '교사'라는 직분이 주어졌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학부 교사란 단의 중장단 교사이다. 하지만 그 타이틀이 나에게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다. 교회 중간의 찬양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본 지체들의 줄고, 가르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찬양을 준비하는 일을 맡게 된 것 뿐이다(물론, 그 직분을 가깝게 생각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함께 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는 비결은 배우는 것이다.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습들이 저절로 묻어나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해해 주며, 올바른 것을 제시하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고자 한다.

부족한 모습이 훨씬 많은 자에게 '가르침'보다 '보이는 함께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배우며 성숙해지고 싶은 것 또한 나의 목적이요 소망이다.

후배들을 헤아려 주었던 선배들의 모습처럼, 이제는 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게 예전에 받았던 사랑의 크기와 모양을 기억해가며 대학부 지체들을 섬기고 싶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향기로온 제물

곽 현 구 (대학부)



회장이 되기 전, 제 삶에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습다. 그리고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했고, 때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제 목적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참 사랑하셔서 대학부 회장이라는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일단 제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 제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았다면 아마도 저는 대학부 회장으로 섬기면서 이런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먼저 제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과 제 삶의 연합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었으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받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저의 22살의 젊음입니다. 저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온 제물로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꽃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향기와 향기를 선사하고 열매를 위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이 배꽃이라든 배를 맺을 것이고 복숭아꽃이라든 복숭아를 맺을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 먼저 꽃이 시들어야 하듯이 제 젊음을 바쳐 얻게 될 열매가 궁금합니다.

충원교회 대학부원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원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살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김 수 연 (대학부 교사)

학박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다'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그는 질문이 많은 진지한 사람이었다. 바벨론 제국의 억압과 횡포로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왜 하나님께서 저 지은 자를 멸하지 않으시고 고난 받는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질문한다. 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창 2:4)라는 말씀과 함께 바벨론에게 선포된 저주를 말씀하셨다.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했을 때 학박구는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열리며, 모든 뼈가 물러지고 무릎이 후들거렸다. 그러나 그는 고백한다. 땅국의 제앙을 내리는 그 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것이 어찌 믿음이다.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에베레다. 에베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베레는 비밀이 있는 고백을 바라보는 그 순간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왜'라는 고백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라고 바뀌게 된다. 이 기쁨은 상황에서,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이다.

확신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과 두려움이라고 윌리엄 미켈은 말했다. 주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깨뜨리는 것을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달고 오묘한 그 말쑥 / 2월 1일 금요일집회

3. 약속을 이루심

설화의 배경이 되는 약속(창세기 12-50장)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흠으셨다. 인간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인간을 구원할 큰 약속을 주셨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유대도 인간의 죄성(罪性)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각각 자기 아들을 누이고 거짓말을 했으며(창 12:13, 26:7), 사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자기 딸(창 18:12)을 아내로 삼 채워도 걸쳐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했으며, 유다와 그의 며느리는 성적으로 타락했다(창 38장). 요셉의 형제들은 서로 시기하여 요셉을 팔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셨다. 아브라함은 아들 낳을 시기를 지나고 아들은 경사가 없어질정만(창 21:1~2) 하나님은 그에게도 약속을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백 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게 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시 약속의 땅을 주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아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형벌을 얻었고 이브에게는 청결을 받았다(창 32:28). 자식을 시켜서 자라난 형제들을 보호한 요셉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 주셨다. 이것들은 구원이 인간의 윤리적인 행위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인가? 창세기 22장18절은 그 이유를 '네 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라고 기록했다. 그렇다. 아라함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다. 기업으로 말씀대로 어떻게 가져야 되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동생자 이삭을 바쳤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계획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다. 본명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도 개인이었던 셈이라는 달랐다. 이삭을 바쳤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قام도, 요셉도,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했다.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냈다(11:3). 이들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그리고 그들은 불만가지 믿음의 고고 약속을 지켰다. 다섯 달만 후회하지는 않았다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때워야 할 점이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약속의 땅을 버리지는 않았는가? 지금 당장 땅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이 약속의 땅보다도 착각하지는 않는가? 창세기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진묵’ 형제를 소개합니다

충북 진천이 고향이며, 현재 영동포구 신길 4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작업에 대한 법학과를 졸업한 후 지금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 부대 교회에서 잠시 신앙생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청년부 선배의 권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 크고 웅장한 건물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처음 온 사람들에게 대한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에 편안함 느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득한 잘 모르지만 가까이 계신듯 하면서도, 경이감이 드는 범접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일 새가족주에 배우는 성경말씀이 쉽고 알차서 기쁩니다. 신앙이 돈독해지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승진 (사기초반 2등수)

하수정 (새가족부 통시원)

다음주일 찬송

315장 돌아와 돌아와

애조 띤 선율과 호소력 있는 가사로 널리 애창되고 있는 이 찬송가는 엘렌 헌팅턴 게이츠(Ellen Huntington Gates, 1835~1920) 여사가 작시하고 윌리엄 허워드 도슨(William Howard Doane, 1832~1915)이 작곡한 것으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바리새 말쑥신 탕자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가사화 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곤고한가를 경험하게 된다. 결국 그는, 밤마다 문을 열어 놓고 자신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

겉모양 보기에만 가리키는 지의 마음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으니, 그 배경을 알면 '침착한 회개'라는 주제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침묵은 누구나 하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서 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내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서로 세상에 떠돌아다닌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영원한 원수가 된다.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은 이러한 종국을 아시기에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 헌신하셨다(딤후 2:4). 영적인 탐구들이며 이 진실을 통해 지금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 둘째 단의 두 번째 네 번째 마디에 있는 이분 음표 다음의 4분 음표를 너무 크게 길게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음악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숨을 쉴 시간이 짧아 음악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막 단의 '어사'에서 '어사'는 크레센도(점점크게하고) '와'는 디미뉴엔도(점점여기서)한다든가 간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단의 '돌아오라'에서 '라'자에 놀임표가 있는데 음역이 전체적으로 내려가거나 처지기 않도록 4절에서와 놀임표를 한다. (한양대학교)

[한국 교회사]

여러 교파 교회의 정착

우리는 앞서서 말한 의사가 한때(1884, 9, 20)하여 의료선교회를 개교하고 1885년 인디언과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하여 목회선교를 개척함으로써 정교로와 감리교회 한국선교에 착수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리하여 미국 교회의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고 후 일, 장로교회, 성공회, 미국 남·북장로교회, 캐나다장로교회, 오스트레일리아장로교회 등 4개 선교부에서, 감리교의 경우 미국의 남·북감리교회의 2개 선교부에서 한국선교를 추진했으며 영국국교회도 철저히 한국선교에 착수했다. 또 다른 영국계 개종의 교회로 구세군과 성령교, 아식교, 친목회 등의 한국선교가 시작되었다.

이상의 사실은 1910년 이전에 한국에 진출한 교회들의 선교 개척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국에 들어오는 개신교는 다양한 교회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선교의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헌법상 정교가 분리되어 국교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적 형태의 기독교가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였다. 이러한 이유로부터 복음화는 한국교회들의 저속과부터 여러 교파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를 시도하였다. 이는 교파적 특색을 지닌 채 정착되었기 때문에 상호 경쟁심을 유발시켜 교회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교회들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초기 개신교 신앙의 전개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 개신교 역사의 태동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선구적 구도자들의 노력과 복음이 수반되어 상당수의 세례 지원자들이 배출되었는 것이다. 가장 큰 교파인 장로교와 감리교는 물론이고 성결교, 구세군, 안식교 등도 한국인의 구도행위와 선교사 파송 요청에 의해 선교를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인들의 주체적인 복음 수용의 자세를 확인시켜 준다. 예컨대, 외국 선교부의 한국 선교 결정조건의 한국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한국인들의 개신교 선교는 선교사들의 개인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목숨을 건 선구적 한국 교인들의 전진활동 덕에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다. 한국인 구도자들의 활동은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병 중 일기
하늘가는 밝은 길이

홍 동 석 (집사, 6교구)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기계와 발명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 있었고, 공부 잘하는 두 딸과 하나님 잘 믿는 아내 덕에 큰 걱정 없이 일과 가족을 사랑하며 지내고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당뇨 진단이 나왔었다. 당뇨로 고생할 때 교구 목사님께서 처음 위로와 말씀을 하나하나 내 깊이 바라보고 했다. 하지만 당뇨 치료를 하고 고혈압도 진정되자 몸이 별 걱정이 없이 살 속이 컸어 있었다. 그러던 갑자기 목에서 이상한 혹이 발견됐다. 나이 때문인가 싶어 그냥 지나쳤는데 약간의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제 췌장인가? 그냥 혹이 아니라 '후두암'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치료도 불가능한지!

처음엔 잘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병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나는 골방을 찾는 일이 많아지고 조용히 혼자 기도하길 좋아하게 되었다.

수술도 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방산선 치료 때문인지 목은 새까맣게 굵아 속살이 다 보였다. 목을 깎힐 수가 없어 앉아서 자야만 했다. 말도 할 수가 없고 밥도 목에 구멍을 뚫어 집어넣어야 했다. 고동스리위도 고동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기억력 없어도 단편적인 생각이 떠올랐나 사라지곤 했다. 이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어온 생각과 '이제 이주만과 다 삼바 된다'고 하는

아내가 걱정이 되는지 내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물었다. 물론 후회가 없지는 않다. 내 삶이 완전히 만족스러워 삶은 아니었다. 나 때문에 내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았도 했지만 자기에게 급급해 좀더 하나님께 일 헌신하고 싶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확신해 본 적은 없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난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내 장기를 통해 생명을 얻는 사람이 생기기를 기도한다. 이 천국가는 맑은 길이 보인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정 성 현 (유년부)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에요.

나의 친구들이 무서운 지옥에 가면 안돼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밖에 전도를 못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해요.

앞으로는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NO! 하실때

오 수 빈 (소년부 전리반)

하나님이 NO라고

하실 때는

27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

둘째, 지금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할 때에 NO라고 안하셔요.

NO라고 하실 땐 저에게 더욱더

큰 걸 바라시거나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지요.

아~~~ 뭐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がい 없구나!



오 수 빈

총연교회와 찬양감독님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양전여교 총장단 익두스입니다. 그 동안 평안하십니까?

저희는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찬양경연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얻었기에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곡조에 치중된 여러 CCM에 빠져 있었던 저희에게 찬양대회는 찬송가를 좀더 잘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때 받은 장학금은 저희의 자그마한 찬양사역을 위해 시스템(앱)비로 소중하게 쓰였습니다. 장학금의 십일조를 여기에 동봉합니다.

비록 학생인데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찬양 사역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주세요!

저희도 총연교회와 찬양감독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세요.

2002. 1 양전여교 익두스 올림



아름다운 종소리 하늘나라까지 울리도록

김 속 영 (핸드벨 단원)



16살, 대에배 시간!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 하늘나라 천사들같이 끊임없이 하늘 향해 두 팔을 들어 찬양하던 그 모습. 마치 종 연주를 하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과연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 핸드벨 단원이 되는 것은 내 삶에 있어 큰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 핸드벨 단원회집이 있어서 오디션을 받았고, 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꼭 핸드벨 단원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핸드벨로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 사춘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핸드벨은 내 삶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어떠한 일을 10년 동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온 몸으로 찬양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

핸드벨은 보통 13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는데, 한 명만 빠지더라도 끊어진 실라체처럼 곡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 핸드벨 지체들은 연주할 때마다 서로의 호흡을 체형하게 된다. 또한 찬양제나 다른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하나됨,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 곡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연습을 하게 되는데 서서히 곡이 완성되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을 깊이 알 수 있다. 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체들을 보면 매우 감사하다. 아름다운 화음을 위해 서로의 음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서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안의 이런 기쁨들을 함께 나눌 지체들을 찾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핸드벨을 찾아오는 지체들이 줄어들었다. 보이는 것만으로 막연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악보를 잘 봐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악보를 보며 박자를 맞추는 것은 핸드벨에 오면 혼란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혼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영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양하게 하셨다. 나는 앞으로도 핸드벨이란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할 것이다.

Catechism

21. 교회에 관하여

(1) 유령교회와 무령교회

보편적·우주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어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는 모든 백성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중만하게 하시는 그의 중만입니다.

유령교회(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시대에 보편적·우주적 유령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율법 시대처럼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 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집이며 가족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우주적 교회에서 세상 끝까지 있을 성도들의 모임과,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완전한 삶을 위해 직분과 성령과 성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이 임재해서 그것을 유언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습니다. 로마와 교황도 어떤 의미론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자식입니다.

(2) 교회의 3대 표지

교회의 표지는 유령교회에만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합니다.

- ① 말씀의 참된 전파 -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전파가 기독교의 근본에 있어서 참되이어야 하며 믿음과 영혼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② 성령의 정당한 징표 - 로마 가톨릭교회와 같이 성령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따라 합법적인 교역자들에게 의해 그리스도인들과 그 자녀들에게만 징표되어야 합니다.
- ③ 권징의 성실한 시행 - 이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성령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권징을 통하여 하는 교회는 곧 권징의 빛을 상실하게 되고 거룩한 것을 남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와 진정한 권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 18:18; 고전 5:1-5, 13; 14:30, 40; 제 2:14, 15, 20).

(김경배 전도사·청년부 부지도)

교회 소식

알림

1. 2002년 제1차 학습·세례식 안내
2002년도 제 1차 학습·세례식이 24일일 것입니다. 학습 및 세례·입교·개례·유아개례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담당교역자에게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1. 장로 할로사바키교회
일시: 11(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구관 109호
2. 안주침사비 회오 사바키교회
일시: 12(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구관 109호
3. 전도위원회 교회(교구관 6층)
일시: 오늘 10:10
장소: 전도위원회 교회(교구관 6층)
4. 장일침사비 교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베다니교회(분당1층)
5. 학원침사비 교회
일시: 오늘 12:10
장소: 학원침사비 교회(분당지하층)
6. 권사회 3-4지교회
일시: 27(일) 수요일 8:00 예배 후
장소: 장일침사

남녀전도회

1. 바울 1지교회
일시: 10(일) 19:00
장소: 대백산교회
2. 바울 2지교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관 314호
3. 바울 5지교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구관 414호
4. 바울 7지교회
일시: 17(일)다우주교회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관 407호
5. 바울 8지교회
일시: 10(일) 18:00
장소: 구미로 박종근 집사처
(457-9021)
6. 바울 10지교회
일시: 17(일)다우주교회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관 212호
7. 바울 14지교회

-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제2교구관 204호
8. 베드로 2지교회
일시: 17(일)다우주교회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관 314호
9. 베드로 4지교회
일시: 16(일) 19:00
장소: 대백산 집사처(2055-1427)
10. 베드로 11지교회
일시: 17(일)다우주교회 15:00
장소: 교구관 307호
11. 베드로 17지교회
일시: 오늘 10:10
장소: 송파비바시
(703-4747) 새마을수원입구
12. 요한 4지교회
일시: 16(일) 18:30
장소: 노악교회
13. 요한 5지교회
일시: 16(일) 19:00
장소: 양아부교회
14. 요한 6지교회
일시: 16(일) 19:10
장소: 대백산교회(508-8805)
15. 한나 1지교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관 204호
16. 한나 2지교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구관 314호
17. 한나 3지교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예본관대성
18. 한나 4지교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양아부교회
19. 한나 5지교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신교관 지하1층 양변호
20. 한나 6지교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구관 414호
21. 한나 7지교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관 407호
22. 한나 8지교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관 507호
23. 한나 9지교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베다니교회
24. 한나 10지교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관 212호

발제

1. 유유인 성도
(한계식 권사의 모친, 김성진 집사, 권영남 집사, 김동진 성도, 우정순 권말의 회교로, 12교구 통상5구역) / 1/31일 밤세, 2/2일 장례
2. 김범이 성도
(17교구 서한구역) / 1/31일 밤세, 2/2일 장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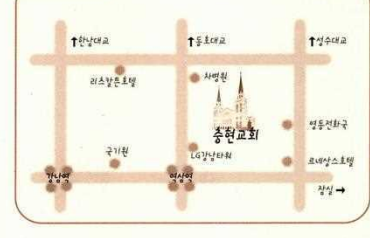
결론

1. 장지침 권(장상주 집사, 조세우 집사의 아들, 62구과 박성철 장바 총을 집사, 김광재 집사의 딸) 2월 16(일) 13:30, 메리비로도 5층 크리스탈홀(2682-2001)

날짜	시간	학급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10일 (주일)	13:30	성경초급	교구관 314호	교포문 (사공정 목사)	교구관 314호	유아세례자	교구관 314호
	16:00-16:50	기초초급	교구관 314호	구원문 (이종대 목사)	교구관 314호	유아세례자	교구관 314호
2월 17일 (주일)	13:30	기초고급	교구관 314호	세례문 (김영대 목사)	교구관 314호	유아세례자	교구관 314호
	16:00-16:50	문당	교구관 314호	문당	교구관 314호	유아세례자	교구관 314호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주일)
김구영	장길남	장만아	박영기	이광근	김정진	장재복

교회 오시는 길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0:00(현충일특별예배)	본당
V	오전 3:00	본당
찬양예배	오전 5:00	본당
수요예배	1:00 ~ 11:00	본당
금요회	오전 7:00	본당
새학기기도회	오전 5:00	본당

성·기·는·분·들

할례주야 찬양대(주일3부) 대원모집

대상: 2002. 2

대상: 중한교회 세례교인으로 만 50세 이하

문의: 총무 박우현 집사 016-369-8604

한도별 단원모집

대상: 2002. 2

대상: 소년부부터 누나

문의: 내선 210 / 송재현 신생님 017-417-6018

전 전도회 교회주변 전도실시

남녀전도부에서는 교회주변 역세권을 중심으로 2월부 터 매월 셋째부터 전교구 전도회가 일제 전도를 실시합니다.

일정: 남전도회 (2월 23일 토요일 오후)

여전도회 (2월 27일 수요일 오후 1부 예배 후)

지역: 이미 배정된 지역에 상가나 주택가 공역 (사전당사로 전도지도 설정)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91	조원형	2	청년1부	이영환(2)	102	김영주	19	청년1부	이한복(2)
92	유완숙	6	에스디	김순재(4)	103	김은진	19	청년2부	박영순(8)
93	정미자	6	청년2부	박유선(8)	104	이경애	7	한나	박순애(12)
94	백인수	7	베드로		105	박찬우	8	청년2부	
95	이은우	7	한나		106	이진화	19	사랑부	
96	임정숙	7	한나		107	박민국	19	대학부	김봉기(19)
97	손덕래	8	소망부	박종연(8)	108	안대성	19	대학부	권보림(5)
98	김진숙	19	고등부	문영선(2)	109	조미진	19	청년1부	
99	김광복	19	사랑부		110	조미라	19	대학부	
100	김기환	19	청년1부		111	강은진	19	청년1부	
101	이승아	19	청년1부	이주영(19)					

* 중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를 오시기 바랍니다.

충현증보의창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② 원로목사 및 모든 교역자가 복음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창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힘쓰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단기전교회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윤인현 최태현 엄필성 강도용 오정현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조진재 김중구 최무걸 김진재 이상호
차신득 박영익 김광남 이종식 윤성길
이하영 이병욱 안종욱 최명환 임두현
이종식 최기홍 이갑재 정훈용 전홍렬
정홍식 김완기 원운철 이형수 안동현
황희만 김구현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대식 정태두 박용규 권명옥 조준환
배춘식 김영달 이철호 박찬원 최지윤
노영한 박관규 정경길 신상수 강철형
고재수 김영은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서광진 정재성 이준경 박민기 여정기
류병희 노경국 이종철 김영춘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영준 나영형 정희호 김용덕 이상욱
고광환
- 찬양감독 강구규**

정현희 김경자 송하영 신동자 윤인숙
김옥을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우주
김갑자 안대순 최희소 박명자 김정연
조옥자 강덕원 김경진 장해구 최문실
김기환
- 교정전도사 박영민**

신교전도사 정은희
- 단기전교사**

단기전신도전교사 최은아
협력전교사 허성호